

● | 길 따라 떠나는 여행

광활함의 대명사이자 자연의 보고

# 백두산

북녘땅을 통해 가는 백두산 관광이 눈앞에 다가왔다. 분단 이후 50여 년만의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백두산을 중국땅을 통해 '백두산'이 아닌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찾곤 했다. 이제 우리 땅을 통해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제 이름 본모습으로 만나게 된다.

# 白頭山

글 | 최성민 한겨레신문 여행담당기자

## 빛나는 자연과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북녘땅으로 백두산에 간다는 것은 금강산에 가는 것과는 또 다르다. 그동안 우리가 휴전선에 가로막혀 섬 아닌 섬에서 5000만 명이 버글대운 사정을 생각하면 역장이 무너져 내릴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좁은 반쪽이 땅에서 지평선을 본 적이 있는가, 만년설을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곰과 호랑이가 뛰어나오는 대 밀림이 우리 땅에 있다는 생각을 꿈속에서나 해본 적이 있는가.

남녘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길(땅길과 하늘길)을 통해 이 민족의 시원이자 땅의 정수리인 백두산에 가는 것은 그동안 우물 안에 갇혀 있다시피 한 우리 사고(思考)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다. 백두산 백두고원(북녘에서는 개마고원을 백두고원이라 부른다)은 '쌍활함'의 대명사이자 자연의 보고이다. 이곳엔 불곰과 사슴이 떼지어 살고 때로는 호랑이 출현 경보가 울릴 정도로 자연의 다양성이 살아있다. 백두산 지구는 지난 1989년 4월 유네스코에 국제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됐으며, 1986년에 김일성혁명사적지를 추가시켜 '백두산혁명사적지특별자연보호구역'이라 부른다.

백두산 관광구역은 백두밀영, 삼지연, 대흥단, 보천보, 베개봉

구역으로 나뉜다. 백두밀영은 북한 지도부의 항일투쟁(전투) 비밀 군사숙영지의 대표격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난 집이 있으며 백두산 관광의 기점이 되는 곳이다. 삼지연은 백두산 눈 내린 물이 흘러내려 이뤄진 아름다운 호수로 삼지연대기념비, 리명수폭포, 삼지연읍문화예술회관 등이 볼거리이다. 대홍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감자밭이 있는 곳으로 흑한의 백두고원에 농장을 개발한 성공사례를 보여준다. 보천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있어서 일본

군과의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곳으로 박물관과 대형 기념탑이 있다. 배개봉은 자연 스키장이 있는 곳이다. 예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이곳에 대규모 스키장을 건립하려 했으나 그보다는 자연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그만두었다고 한다.

관광은 현지의 문화를 현장에서 실감있게 만나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백두밀영같은 항일전투 유적은 남녘엔 가져볼 기회나 상황이 안되었던 것인 만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열린 '역사탐구 자세'가 필요하다.



### 자연이 준 특별한 선물, 백두산의 가을

8월 중순이 지나면 백두산 일대는 농익은 가을빛으로 물든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백두산엔 가을이 따로 없다. 9월 중순이면 벌써 삼지연 너머 저 멀리 백두봉이 흰 눈을 듬뿍 뒤집어쓰고 말 그대로 백두봉이 된다. 그 백두봉을 배경삼아 삼지연 부근에 펼쳐지는 단풍과 낙엽의 잔치는 새하얀 배경이 없이 타는 단풍만 있는 남쪽의 가을에 비해 껍이나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갑무도로'의 단풍길은 환상 그 자체이다.

여기엔 순전히 이깔(잎갈)나무로만 숲이 이루어져 있는데, 낙엽송과 비슷한 이깔나무들의 낙엽이 금빛으로 물들어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기처럼 떨어져 내리는 광경은 이 길을 지나는 인간에게 자연이 특별히 마련한 선물인 것 같다. 이깔나무 이파리들이 훑날릴 때 뿌려대는 고유한 향기는 코 끝을 한결 상큼하게 어루만져 준다. 티 없이 맑은 하늘 청아한 공기 속에서 그 향기와 이



깔나무 낙엽의 세례를 받으며 멀리 보이는 백두봉을 향해 일직선으로 질주하는 드라이브는 이 땅도 이런 광활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백두산 여정의 '세계적인' 가을 정취는 리명수폭포에서 느껴볼 수 있다. 폭포수들이 몇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져 있는 사이로 단풍나무와 떡갈나무 이파리들이 붉은색, 갈색, 노란색으로 물들어 폭포수의 흰 포말 사이로 떨어져 내린다. 그 모습은 단풍 든 낙엽이 떨어져 내린다고 하기 보다는 하얀 폭포수 위에 또 다른 오색물감 폭포수가 하늘에서 날아와 뒤섞여 노닌다고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리명수폭포는 북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명소이다. 백두산의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흘러와 이곳 절벽에서 드러나 아래로 떨어지는 세계 유일의 '지하수폭포'이다. 이 폭포는 지하수폭포라서 그런지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대신 지하수의 따뜻한 기운이 대기의 찬 기운과 만나 안개로 변하면서 주변 나뭇가지에 달라붙어 안개얼음꽃 장관을 이룬다. 리명수폭포 주변은 깨끗하기 이를 데 없는 폭포수와 원시자연이 엮어내는 생명력이 온몸으로 실감할 만큼 충만하다. 폭포수가 흘러가는 강엔 팔뚝만한 고기들이 떼를 이루고 물가에엔 물까마귀 등 희귀 조류들이 서성대고 있다. 강변엔 또 이름모를 야생화와 들풀들이 극히 토실하고 풍성한 식생을 이루고 있다.

자연의 황홀함이 극치인 백두산의 가을 속에서 다람쥐와 곰, 사슴 등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겨울양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리명수폭포 마을 집들은 두 세 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처럼 보였는데 흙 또는 시멘트벽에 너와지붕이 많았다. 주택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남녘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시골 수준과 같아 보였다. 집집마다 텔레비전 안테나를 세워둔 것도 눈에 띄었다. 주민들은 궁핍한 차림이었으나 얼굴은 가을햇살처럼 '가난한 행복'의 표정이었다. 티 없는 자연에 사는 것이 한 요인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